

사회

/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참가 장애인들 /

마라톤은 차별없는 공간... 시민들과 '행복 레이스'

지체장애 김국현씨 가족 휠체어 밀고 끌고 5km 완주

복지관별 수십명씩 참여 봉사자 손잡고 끝인 '박수'

레이스에는 장애도 비장애도 없었다. 모두 같은 출발선에 선 경쟁자이자 친구였다.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수많은 장애인들은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비장애인들과 당당히 겨루며 모두가 하나 되는 레이스를 펼쳤다.

지체장애 1급인 김국현(44)씨는 이날 아내 성숙이(40)씨와 두 아들 재룡(12)·재환(9)군, 그리고 딸 수경(11)양의 손을 잡고 5km 코스를 완주했다.

큰아들 재룡군이 김씨의 두 다리인 휠체어를 밀고 다른 가족들이 뒤를 따랐다. 오르막과 내리막 코스에서 재룡군이 힘에 부치면 재환군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들 가족에게는 장애는 큰 불편이 되지 않았다. 기록도 의미가 없었다. 단지 함께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다.

한없이 행복한 이들에게도 힘든

시절은 있었다. 7년 전, 택배 기사로 일하던 김씨는 두 다리가 마비되는 불의의 사고를 겪으면서 불행이 찾아오는 듯했다. 좌절감에 김씨는 짜증이 늘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용기를 냈다. 작은 불행 때문에 어린 아들·딸들에게 좌절을 가르칠 순 없었다. 3년 전 가족들에게 마라톤 대회에 대한 말을 꺼냈고, 가족들은 흔쾌히 동의했다. 비장애인도 힘든 마라톤 완주를 세 자녀들은 김씨의 휠체어까지 밀며 거뜨히 해냈다. 김씨의 가족은 더 이상 불행하지도, 힘들지도 않다.

김씨는 "마라톤 참가로 가족들 모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불행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꿈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엔마우스 복지관에서 재활훈련을 하는 10~40대 정신지체 장애

인 16명도 이날 교사 8명과 함께 5km 코스를 완주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이들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결승점에 도착해 큰 박수를 받았다. 완주 기록도 모두 30~40분대로, 이들에겐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곳에 모인 장애인들은 평소 100m 달리기도 꺼리지만 마라톤 경기는 무척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 모두 어울려 땀을 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마라톤 레이스는 기록에 대한 도전이라기 보다는 차별 없는 참여이자 공간이었다.

복지관에서 재활훈련을 받는 김혜지(여·19)양은 처음엔 숨이 차 허벅지였지만, 선생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완주했다. 특히 마지막 트랙을 돌 땀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려 웃으며 뛰었다. 김양은 완주 메달을 목에 걸고 "내가 해냈어요"라고 말했다.



휠체어를 탄 김국현씨와 함께 5km 코스를 완주한 김씨의 가족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결승선에 들어서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이 외에도 광주시 장애인배드민턴협회에서도 지체·지적·청각장애인과 가족들 50여명이 참가해 5km를

완주했으며, 보해양조(주) 직원과 봉사단 45명이 광주작은예수의집 지적장애인 10명과 손을 잡고 5km를

완주해 감격을 받았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원침 (8257) 김종두



완도 해상 30대 선원 실종

완도 해상에서 30대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완도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7시께 완도항 해상에서 대가 중이던 9.77톤 연안저망 어선 선원 이모(35)씨가 실종됐다.

이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동료 선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선내에서 잠 자리에 들었으나 현재까지 종적이 묘연한 상태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동료 여성노숙자 살해 남부경찰, 40대 영장

광주남부경찰청은 1일 자신과 같은 노숙자 보호시설에 살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임모(40)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4일 밤 10시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 모 노숙

자 보호시설에서 최모(여·45)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이날 최씨의 방에 들어간 뒤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범행 직후 화순의 한 야산으로 도주한 뒤 지난 28일 밤 식사를 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왔다가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민노당 후원 교사 대량 퇴출 없을 듯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민노당 후원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임 여부를 각 시·도교육청 재량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교사 중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양정이 무거워진 공립 교사 50명을 파면, 84명을 해임, 기소유예자 4명을 정직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상당히 변화된 것이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서는 각각 3명과 2명이 징계대상이 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남구 '돈 상자 배달' 50대女 벌금형 "뇌물 전달 안돼도 유죄"

광주지법 200만원 선고

지난 2009년 광주시 남구에서 발생한 '돈 상자 배달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실제 '돈 상자'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뇌물공여죄는 성립한다는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1일 취업 청탁과 함께 공무원과 지방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모(여·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공여죄는 상대방이 뇌물을 받아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씨

가 건넨 한 돈이 공무원과 지방의원에게 사실상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뇌물공여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광주시립도서관의 일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9년 11월 21일과 12월 6일 각각 구청 공무원과 구의원의 집에 현금 500만원과 우족 등이 담긴 상자를 경비원 등을 통해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돈 상자 사건'은 2009년 12월 22일 이씨가 구의원의 집에 보내려던 돈 상자가 옆집으로 잘못 배달되면서 불거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또 ... 달리던 시내버스 유리창에 돌멩이

전주경찰, 수사 나서

전주지역의 시내버스 파업이 3개월째 접어들어 장기화하는 가운데 임시 시내버스로 투입된 전세버스의 유리창이 잇따라 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전주 덕진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47분께 전주시 금암동 기린로를 달리던 서모(44)씨의 버스에 돌멩이가 날아와 유리창이 깨졌다. 20여분 뒤에는 인근 한진고속 앞 도로에서 정모(57)씨가 운전하던 전세버스에 돌멩이가 날아와 유리창이 파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충격 부위의 지름이 1cm가량인 점으로 미뤄 누군가 새총에 돌이나 쇠구슬을 넣어 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도 운행 중인 전세버스와 시내버스 3대에 잇따라

돌멩이가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지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지리산 눈 차량 10여대 고립

노고단~성삼재 구간

1일 오후 2시께 구례군 지리산 일대에 갑작스레 눈이 내리면서 노고단(1507m) 시알재에서 성삼재 구간을 통과하던 차량 10여대가 고립됐다.

이들 차량은 체인 등 월동장비를 장착하지 않고 고갯길을 오르다 차가 미끄러져 크게 당황하면서 운행을 멈추고 119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모텔 취업 8시간만에 금고될어 도주

○광주의 한 모텔에 취업한 지 8시간 만에 수십만원의 숙박료를 훔쳐 달아난 40대 종업원이 경찰서행.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43)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4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L모텔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57만원이 든 금고를 털 혐의.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범행 당일 L모텔에 취업한 뒤 심야에 주인이 잠을 자러 자리를 비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정씨가 면접 당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토대로 신원을 파악한 뒤 북구의 한 모텔에서 은신 중인 정씨를 검거.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열심히 일한 당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광고심의필: 1091-0300

LOVE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과도한 업무, 무한 경쟁압박, 쌓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 잦은 과음으로 지치고 힘든 나의 간- 이제, 사랑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성공한 인생과 행복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간장질환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사망 원인 중 5위를 차지하고, 특히 40대에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간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만성 간장질환자의 60~70%가 바이러스성 간염과 관련되어 있으나, 알코올이나 약물, 비만 등도 간장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잦은 음주로 인한 알콜성 간장질환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국제약품이 함께합니다.

손상된 간세포와 간조직을 재생하는- Carduus Marianus Extract가 함유된 만성 간질환, 독성 간질환 보조 치료제

간장보호기능 생약성분 및 비타민 복합제

리버비타 연질캡슐

*기타 제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제약품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남동 53-2, 개평/아케팅 TEL: 031-781-9080)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